

음악·그림이 있는 목포역 '인기있네'

전국 최초 역구내 '락' 공연·'글로벌미술관' 개관

관광객들 큰 호응...새로운 문화트렌드 형성 주목

목포역이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전시·공연 장소로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형성해 주목을 받고 있다.

목포역(역장 박석민)은 최근 대학생 여행상품인 '내일로' 관광객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역 구내에서 '락' 공연을 펼쳤다.

〈사진〉 이번 공연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 '신화장조'의 장단범민 박형기 가수가 직접 출연해 예상 목표를 알리고 여행의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했다.

공연을 관람한 조현희(부산)씨와 김지윤(의정부)씨는 "역에서 이런 멋진 공연을 보게 될 꿈에도 몰랐고 신선한 충격이었다"며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박석민 목포역장은 "여행과 예술이 결합되면 여행이 더욱 재미있고 목표를 찾는 관광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여행 목적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목포역은 지난 4월 2층에 90㎡ 규모의 '글로벌 미술관'을 개관, 외지 관광객들은 물론 시민들이 기차를 기다리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남도 문화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 화백의 이번 전시 내용은, 김희준, 강남선, 윤현식, 서순례, 김근태, 강금복, 장원선, 박영도, 박화자, 김홍복 등 16회를 넘어서



다. 전시회 영역도 단순 동·서양화에서 문인화, 도예, 조각 등 회가 거둬질 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8일부터 12일까지 17번째 전시로 남강 박재욱 화백의 '다도해의 노래'전이 마련된다.

현재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 화백의 이번 전시 내용은, 김희준, 강남선, 윤현식, 서순례, 김근태, 강금복, 장원선, 박영도, 박화자, 김홍복 등 16회를 넘어서

박 화백은 지난 1977년 전국 공무원 미술대전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래 도전 입특선, 국전 3회 입선 및 특선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이 밖에도 목포역은 KTX와 접목해 수도권 미술애호가와 수집가들을 대상으로 기차관광도 하고 미술품도 구매하는 패키지 상품을 운영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o@

해남 화원 화력발전소 저지 '서남권공대위' 뚫다

해남·진도·신안·목포 등

4개 시·군 대책위원회 참석

해남군 화원면에 추진중인 화력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서남권 공동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해남화력발전소반대 서남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서남권공동대책위)는 지난 3일 목포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해남·진도·신안·목포 등 4개 시·군 지역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서남권공동대책위는 해남군 화원면 화력발전소 건립반대 대책위 김동현 위원장을 서남권공동대책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해남·진도·신안·목포 등 4개 지역대책위원회들이 상임 공동대표를 맡아 앞으로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해남과 진도·신안·목포 등 4개 시·군 지역대책위원회들은 지난 3일 '해남화력발전소 반대 서남권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서남권 공동대책위는 6일 서남권 주민 1000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서울 상경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지식경제부·민주통합당·국회를 차례로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력발전소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알릴 계획이다.

서남권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전남 서남부권의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해남 화원면에 추진중인 화력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동력을 한데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함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림사업 박차

4억2천만원 투입 총 88ha에 백합나무 등 14만7천주 식재

함평군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조림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함평군은 최근 손돌본면 군유산 자락에서 올해 첫 나무심기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조림사업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관계 공무원과 군산림조합 임직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해 1.5ha 임야에 편백 2200여 그루를 식재했다.〈사진〉

군은 올해 총사업비 4억2000만 원

을 투입해 ▲바이오 순환림 30ha ▲산림재해 복구조림 30ha ▲유류토지 조림 10ha 등 총 88ha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이날 말까지 '피톤치드' 효능으로 잘 알려진 편백나무와 성장속도가 빠르고 대기오염물질 흡수 능력이 뛰어난 밀원 수종인 백합나무 등 7종 14만7000주를 식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군은 3월에 매화나무와



대추나무 등 유실수 4000여 그루를 군민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열고, 나무심기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

하고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황운혁기자 hwang@

해남 친환경쌀 서울지역 학교급식 잇단 선정

관악구 이어 동작구 20개 초교에도 공급

해남 친환경쌀이 서울시 관악구에 이어 동작구의 초등학교 급식용 친환경쌀로 선정됐다.

5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관악구와 동작구의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전국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공급능력·납품가격·품질관리 방안·농촌프로그램 운영여부 등을 심도있게 평가한 결과 인성능의 친환경 무농약쌀 '고향찰

쌀'을 각각 선정했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 올해부터 중학교까지 급식용 친환경쌀을 공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악구 36개 초·중학교와 동작구 20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해남쌀을 급식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군은 친환경 해남쌀을 수도권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구청과 11개 교

육지원청, 전 초등학교·중학교에 학교급식 제안서를 보내는 등 마케팅을 적극 펼쳐왔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에도 수도권 생태유아 공동체에 친환경쌀 100t을 계약해 납품(옛고친환경)하고 있다. 군은 더 많은 납품처 확보를 위해 서울 전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쌀 시식 및 홍보물을 발송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전 북

도시 숲 확충... '열섬현상' 줄인다

도, 140억 들여 올해 숲 31ha·가로수 길 45km 조성

전북도는 날로 심화하는 도시의 '열섬현상'(Heat Island Effect)을 줄이기 위해 도시 숲과 가로수 길을 대대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고층 아파트와 자동차 배기가스의 증가 등으로 도시의 온도가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올해 140여억원을 들여 31ha의 도시숲과 45km의 가로수 길을 각각 만들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시 숲은 여름 한낮의 평균 기온을 3~7도 낮추고, 평균 습도는 10% 안팎 높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해 준다.

도는 도심내 국·공유지와 공한지 등을 활용해 공원형태로 도시 숲을 조성하고 가로수는 도로뿐 아니라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변에도 심기로 했다.

도는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권에 숲을 만들어 생활주변의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도시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인위적 시설물 위주의 공원 대신 산림 형태의 숲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열섬 방지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북도 관계자는 "각종 개발로 도심의 녹지공간이 줄어들면서 열섬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도시 숲과 가로수 길을 조성해 '열섬 현상'을 줄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한편 '열섬현상'은 인공물과 건물 밀집돼 있는 도심지 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기온현상을 의미한다. 건물이나 도로,콘크리트로 덮인 지표면이 수분을 포함한 흙보다 더 많은 태양열을 흡수·저장하고 태양에너지를 방사하는 반사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읍 전통공예관 배움열기 뜨겁다

도자기·한지공예 등 장인 직접 강좌

정읍시 내장동에 위치한 정읍 전통공예관이 시민들의 배움열기로 뜨겁다.

정읍 전통공예관은 ▲도자기(기공) ▲한지공예(한진속) ▲압화(김희성·사진) ▲컬러 점토공예(성숙희) 등 장인 4인방이 공예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전통방식으로 도자기를 빚고 장신구와 인형, 한지 찾상을 제작한다.

장인 4인방은 자신들이 지난 전통공예 재능나눔에도 적극적으로

이다. 이들은 지난 2007년 개관 이래 6년간 정읍 전통공예관에서 운영하는 정읍 전통공예 강좌에 참여해 시민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동안 정읍 전통공예 강좌를 수료한 수강생은 시민과 청소년 등 5000여명에 달한다.

올해도 오는 17일까지 수강생을 모집, 3개월간 전통공예 강좌를 열 계획이다. 문의(063-534-8228)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정읍 태인 농공단지 95% 분양

연내까지 11개 기업 입주

정읍시 태인 농공단지 분양이 연내에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읍시는 "태인면 오봉리에 조성한 농공단지에 현재 비전지중공업을 비롯한 11개 기업이 입주계약하는 등 95%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태인·신태인을 비롯한 북부 지역의 생산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태인 농공단지 지 2010

년부터 조성했다.

태인 농공단지는 오봉리 일대 25만여㎡에 196억원을 들여 완료됐다. 폐수를 유발하지 않는 철강, 금속, 전자 같은 제조업체가 입주하며 일자리 100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인 농공단지는 호남고속도로, 국도 1호선, 국도 30호선과 5분 거리로 접근성이 좋고, 분양가도 ㎡당 6만 8000원(평당 22만5000원)으로 낮은 편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할짝 핀 복숭아꽃

남원시 금지면 입암리 시설하우스에 복숭아꽃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시설하우스 복숭아는 당도가 높은 가남 품종으로 5월 하순에 수확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kwangju.co.kr

뉴스 브리핑

전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 찬반 투표 돌입

임금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한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오는 7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 결과에 따라 12일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한다. 노조는 7일 오전 11시 전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결과와 향후 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김동균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 사무국장은 "현재까지 80% 이상의 조합원들이 투표를 마쳤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 인구 한달새 437명 늘어 27만6538명

산업도시로 변모하는 군산시의 인구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5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27만6101명이었던 주민 등록상의 인구가 한 달 사이에 437명이나 늘었다. 2월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인구는 남자가 14만

590명, 여자 13만5948명으로 총 27만6538명으로 집계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풍력, 조선, 중공업분야의 대기업이 대거 들어온데다 새만금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희석기자 nogusu@

김제 지평선 황금보리 명품화사업 최우수

김제 지평선 황금보리 명품화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는 주관의 '향토산업 육성사업'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김제시 지평선 황금보리 명품화 사업은 2011년 총사업비 10억 6000만원을 투자해 참여기업 매출액 5억 4000만원과 주류 자동

화설비 라인구축을 통해 생산원가절감 및 가공상품의 생산성향상 등 시장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제시 지평선마케팅 안상일 과장은 "보리 재배 면적을 확보해 다양한 보리 가공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순기기자 hnews@

순창 농기센터 녹색식생활 확산 평생학습 교육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가 전통식문화 계승과 녹색식생활 확산을 위한 농촌생활 평생학습 교육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일부터 3개월간 주민 75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교육장에서 한식 디저

트반·생활요리반·약선음식반 등 3개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통음식의 현대화를 통한 메뉴 개발과 웰빙 건강식생활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